

파레틴 오렌리 개인전: 도시 유전자 -> 버블 인 더 마인드

Fahrettin Örenli Solo Exhibition: The City Genes -> The Bubble in the Mind

압력솥

내면 깊숙이
나는 끓고 있다
닥치는 대로
압력솥 안에 든 채로
그렇게 맹렬히 살고 있다
오늘 혹은 내일을
이 도시에서

마천루의 틈에서
뿔어져 나오는
증기의 힘과 함께
나는 뒤섞인다
거짓 구름 가운데
오늘 혹은 내일
이 도시에서

그럭저럭 관찮게 지내고 있다 생각하던 차에
어이쿠 다시 또 넘어지는 나
짓눌리고 졸아든다
바퀴가 어루만지고 지날 때마다
교통의 흐름이라는 저 괴물의 손 안에서
오늘 혹은 내일
이 도시에서

용케 도망쳤나 희망이 들 때마다
다시 한번 끌려들어
은밀히 팔린다
벼룩시장에서 거래되는
만료된 구화폐처럼
오늘 혹은 내일
이 도시에서

마천루가 드리운
그늘 아래
나는 기도한다

머릿속의 험거워진 나사마다
못을 대신해 박듯
오늘 혹은 내일
이 도시에서

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
이유라곤 모른 채
매일 아침 나는 잠에서 깬다
날카로운 휘파람 소리 가운데
변함없는 이 압력솥 안에서
오늘 혹은 내일도
이 도시에서

번역: 이에원